

삼성, 리튬전지 산요 제치고 1위

산케이신문, 출하점유율 20.1% ... LG화학도 소니 제치고 3위 부상

삼성SDI가 리튬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삼성SDI가 2010년 리튬이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의 산요(Sanyo)를 제치고 수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조사기관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리튬전지 출하개수 점유율은 삼성SDI가 20.1%로 산요(19.9%)를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위는 LG화학(15.0%), 4위는 소니(11.9%)가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와 LG화학을 합친 국내기업의 점유율은 35%로 일본기업(42%)을 바짝 추격할 전망이다. 10년 전에는 일본기업이 94%, 국내기업은 약 2%였다.

산케이신문은 일본기업이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시장은 한국, 태양전지는 중국에 뺏긴 마당에 리튬이온전지 시장마저 한국에 내주게 됐다며 일본기업과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리튬이온전지는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폰용 수요가 가장 많지만, 전기자동차(EV)용 판매가 본격화되면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리튬이온전지 시장은 현재의 4배 이상인 50조원에 이르고 40%가량을 전기자동차용 전지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0>